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주요 미 소매 체인들, 연말 매출 둔화될 듯
- Bloomberg: ‘임대료 인플레이션은 2026년까지 떨어지지 않을 듯’

[미국 금융]

- Bloomberg: 12월 금리 인하 둔화 리스크로 국채 수익 감소 전망
- Bloomberg: 모건스탠리 약세론자, “내년 미 증기 낙관적” 전망

[트럼프 행정부]

- Bloomberg: 트럼프, 자율주행차 규정 완화 모색
- CNNBusiness: 트럼프, 석유 추가 생산 공약에 빨간불
- Bloomberg: BofA “트럼프 관세 정책이 원자재 가격 위협할 수도”
- CNNBusiness: 트럼프 정책이 미 가구 재정에 끼치는 영향

[오일]

- NYT: 석유 회사들, 친환경 에너지에서 물러선다
- WSJ: 유가 하락... 수요 전망 약화 때문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항공사 스피릿 파산 신청
- CNBC: 2024년은 레스토랑 체인에게 힘든 한 해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 [KOCHAM 트럼프 정책 시리즈: 관세](#)

[미국 경제]

Bloomberg: Holiday Outlooks Due From Major Retailers in Test of US Consumer

주요 미 소매 체인들, 연말 매출 둔화될 듯

- 월마트, 타겟, TJ 맥스 등 주요 소매 체인들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된다. 소비자 지출이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연말 매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들은 트럼프의 향후 관세 인상 조치의 여파에 대해서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 전통적인 소매업체들을 위한 성수기 매출이 지난해보단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2018년 이래 가장 느린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산업 전망 분석은 예상하고 있다. 또한 올해의 경우 추수 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사이에 쇼핑 날짜가 5일 줄어든 상태다.
- 특히 높은 관세 정책을 표방하는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하면서 앞으로 수개월 동안 관련 소매업계 주식은 새로운 리스크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Rent Inflation Won't Ebb Until 2026, Cleveland Fed Model Shows**‘임대료 인플레는 2026년까지 떨어지지 않을 듯’**

- 클리블랜드 연준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 지수 가운데 임대 인플레가 팬데믹 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2026년 중순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새로운 임대 계약 시에 임대 인플레는 둔화되고 있지만, 새롭게 임대하는 숫자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 주거 비용은 소비자물가 부문에서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한다. 10월 물가 상승에선 50% 이상을 차지했다.
- 만약 클리블랜드 연준 예상처럼 인플레 물가 둔화에 1년 반을 기다려야 한다면, 금리 인하의 근거로 인플레가 둔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연준 관리들에게 큰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Bloomberg: Treasuries See 2024 Gains Dwindle With December Fed Cut at Risk****12월 금리 인하 둔화 리스크로 국채 수익 감소 전망**

- 트레이더들은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와 오는 12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드는 리스크에 대비하면서 두 달간의 슬럼프로 국채 시장의 수익이 사라졌다.
- 블룸버그의 국채 수익 지표는 연준이 2020년 이후로 처음 금리를 인하한 직후 최고치인 4.6%를 기록했다가 9월 17일, 0.7%로 상승 폭이 줄어들었다.
- 이 같은 미국채 시장의 실망스러운 손실은 견조한 미국 경제와 높은 관세, 낮은 세율을 시행하겠다고 공약한 트럼프의 승리 때문에 인플레가 올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로 큰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10년 물 국채 금리는 지난 9월 18일 이래 거의 4분의 3포인트나 뛰었다. 이는 지난 1989년 이래 금리 인하 사이클의 첫 2개월 중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Prominent Wall Street Bear Wilson Sets Bullish US Stocks Target

모건스탠리 약세론자, “내년 미 증기 낙관적” 전망

- 지난 수년간 미 증시에 대해 약세론 주장을 펼쳐온 모건 스탠리의 전략가 Michael Wilson은 내년엔 미국 증시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 S&P 500이 내년 말에는 지난 금요일 증가 수치에서 11% 상승한 6,500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향후 경제 성장과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전망했다. 트럼프의 규제 완화와 관세 정책도 상승 요인으로 지목했다.
- 한편 미 증시는 지난 2023년 초 이래 거의 50% 이상 상승했다. 인공지능에 대한 열기, 놀라울 정도의 경제 회복, 금리 인하에 따른 것이다.

Bloomberg 기사

[트럼프 행정부]

Bloomberg: Trump Team Is Seeking to Ease US Rules for Self-Driving Cars

트럼프, 자율주행차 규정 완화 모색

-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정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는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을 주력으로 하는 테슬라에게 큰 혜택이 될 것이다.
- 자율주행차를 위한 규정 완화 자체는 미 고속도로교통안전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을 통해 가능하다. 하지만 자율주행차의 대규모 상용화를 위해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입법안이 현재 논의 초기 단계이다.
- 현재 교통부 장관 후보로 고려되고 있는 인물은 전 우버 임원인 Emil Michael과 공화당 하원 의원 Sam Graves와 Garret Graves가 있다.

Bloomberg 기사

CNNBusiness: Trump's pick for fracker-in-chief will have a tough time pumping a lot more oil

트럼프, 석유 추가 생산 공약에 빨간불

-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당시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을 늘려 현재 갤런당 평균 3.07달러인 휘발유 가격을 갤런당 2달러까지 낮추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공약은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석유 가격은 단순히 미국이 생산을 늘린다고 바로 떨어지지 않는다. OPEC에서 생산을 줄여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 또한 미국 석유 산업은 이미 호황이다. 미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 따르면 미국은 하루 1천3백40만 배럴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양이다.
- Lipow Oil Associates의 회장 Andy Lipow는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곳은 이미 시추가 완료되었다. 생산량을 늘릴 수 있지만, 하루 생산량 1천4백만 배럴을 크게 넘길 정도로 늘리긴 힘들다. 트럼프가 말한 대로 석유 생산량을 50% 늘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CNNBusiness 기사

Bloomberg: Trump's Tariffs Threaten Commodity Prices, BofA's Blanch Says

BofA “트럼프 관세 정책이 원자재 가격 위협할 수도”

-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 창출을 일으키려는 트럼프의 높은 관세 공약이 원자재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고 Bank of America의 전략가 Francisco Blanch는 전망했다.
- 그는 "한마디로 아메리카 퍼스트는 원자재가 세컨드가 된다는 의미이다."라고 말했다.
- 현재 트럼프는 모든 외국산에 20%, 중국산에 60% 관세안을 추진 중이다.
- 한편 이 같은 관세 정책이 어떤 여파를 가져올지 아직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인플레이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전략가 Blanch는 트럼프 새 행정부는 액화 천연가스 수출 허가 발급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CNN Business: 7 ways a Trump administration could affect your finances

트럼프 정책이 미 가구 재정에 끼치는 영향

- 자녀 양육 세금 공제: 트럼프는 첫 임기 때 자녀 공제액을 1천불에서 2천불로 늘렸었다. 이 같은 조항을 담은 법은 내년 말에 폐기될 예정이었지만, 의회의 승인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부통령 당선자 JD Vance는 심지어 5천 불까지 상향 조정을 제안하고 있다.
- 감세: 내년에 끝나는 법에 담겨있는 세금 감면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감세 정책 연장으로 2026년에 평균 2천 불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감 감면 혜택의 거의 절반은 연 45만 불 이상 버는 가구의 상위 5%에 돌아갈 것이다. 중산층의 경우는 그들 수입의 1.3%인 1천 달러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인플레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일상 소비재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국 소매연합회는 전망했다. 예를 들어 90달러 짜리 운동화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106~116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소셜 시큐리티:** 트럼프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줄이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소셜 시큐리티의 연방 세금 없애고 종업원의 팁과 오버타임 연방 세도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감세는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소셜 시큐리티 재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CNNBusienss 기사

[오일]

NYT: Why Oil Companies Are Walking Back From Green Energy 석유 회사들, 친환경 에너지에서 물러선다

- 4년 전, 석유 회사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당시엔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수요 감소로 석유 가격이 폭락했었다. 때문에 많은 기업과 투자자에게 친환경 에너지는 석유와 가스보다 괜찮은 사업으로 보였다.
- 하지만 트럼프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석유와 가스 산업에 대한 낙관주의가 커졌다. 수익 측면에서도 석유와 가스 산업이 친환경 에너지 산업보다 좋았다.
- S&P Global Commodity Insight에 따르면 세계 최대 투자자 소유 석유 기업 중 일부는 자본수익률이 지난해 11%를 넘었다. 친환경 에너지 기업은 2% 정도에 머물고 있다.
- BP는 2020년 석유와 가스 생산을 4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는 화석 연료에 투자를 늘리기로 방향을 바꿨다. 에너지 회사들이 자사의 핵심 역량과 수익에 집중하는 것이다. Shell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완화하거나 폐기하고, 친환경 에너지 사업의 성장 기대치를 낮췄다.

NYT 기사

WSJ: Oil Prices Fall as Demand Outlook Remains Gloomy 유가 하락... 수요 전망 약화 때문

- 유가가 금요일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브렌트유는 0.15% 하락한 70.93달러에,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0.4% 하락한 66.78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 Swissquote Bank의 Ipek Ozkardeskaya는 “최근 몇 주 동안 유가가 몇 차례 반등을 시도했지만, 글로벌 공급 증가와 약한 수요 전망이 유가를 계속 하락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WSJ: Discount Airline Spirit Files for Bankruptcy
항공사 스피릿 파산 신청**

- 스피릿 항공이 초저가 할인 모델로 인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파산 신청을 했다. 스피릿 항공은 승객들에게 계속 모든 티켓, 크레딧(credit), 로열티 포인트(loyalty point)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 스피릿 항공은 챕터11에 따른 재구성 협상에서 재무 구조 개편을 약속했다. 대다수 채권자들은 이를 지지했으며, 3억5천만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스피릿 항공의 부채는 7억9천5백만 달러 줄어든 예정이다.
- 스피릿 항공은 할인 항공사의 선구자였으나, 주요 항공사들이 점점 더 저가 항공권을 제공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동시에 노동 비용의 증가와 엔진 문제를 겪었다. 이에 2022년 제트블루에 인수되기로 하였으나, 연방 법원이 해당 인수를 막으면서 대규모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WSJ 기사

**CNBC: Restaurant executives can't wait for 2025 after slow traffic and wave of bankruptcies
2024년은 레스토랑 체인에게 힘든 한 해**

- 2024년은 레스토랑 체인들에게 힘든 한 해였다. 2024년 레스토랑 체인의 파산 신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1년 이상 운영된 레스토랑 방문객 수는 2024년 9월부터 매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
- 하지만 희망도 있다. Revenue Management Solutions에 따르면 2024년 10월 패스트푸드 방문객 수가 지난해보다 2.8% 증가했다.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금리도 하락했다. 덕분에 새로운 자금 조달이 가능해졌다.
- 하지만 모든 것이 희망찬 상황은 아니다. 2025년에도 거시경제 및 레스토랑 업계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가격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도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 파산의 위협도 여전하다. 특히 할인으로 고객을 되찾으려는 레스토랑 체인에게 파산의 위협이 크다.

CNBC 기사

[보고서]**미국 대선 이후 주식·코인 급등... '위험' 경고도 나왔다
美 주식펀드에 2008년 이후 두번째 많은 자금 유입**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등에 몰려들면서 주가와 코인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EPFR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주식 상장지수펀드(ETF)와 뮤추얼 펀드에는 지난 7~13일 한 주간 560억 달러의 자금이 순유입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 주간 유입액으로는 2008년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월간 단위 자금 순유입은 7개월 연속 이어졌다. 이 기록은 2021년 이후 최장이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트럼프 정책 시리즈

1. 관세 정책(중국, 보편 관세, 글로벌 교역 및 한국 여파)

- 배경
- 트럼프 2기 관세 부과 계획
- 관세 부과에 대한 효과와 평가
- 대(對) 한국 제품 관세 예상

2. IRA 및 반도체 정책

3. 인플레이와 금리 향방

4. 원유 및 재생에너지

5. 미국의 대외 정책(러시아, 이란, 이스라엘)

6. 대(對)한국 정책(무역 구조, FTA, 방위비 등)

KOCHAM 트럼프 정책 시리즈 - 관세 정책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